

#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 및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유수열<sup>1</sup>, 조옥선<sup>2\*</sup>

<sup>1</sup>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sup>2</sup>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Subjective Happiness of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in Low-Income Famil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Gender Differences

Su-Yeol Yoo<sup>1</sup>, Ouk-Sun Cho<sup>2\*</sup>

<sup>1</sup>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eneral Graduate School, Hansei University

<sup>2</sup>Lecture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Ha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울감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자는 한국복지패널 17차 데이터에서 저소득층 중장년 1인가구 482명을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및 PROCESS MACRO Model Number 1과 4를 활용하여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우울감이 부분 매개하였다. 셋째,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주관적 행복감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키워드** :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적 관계 만족도, 우울감, 주관적 행복감, 성별 차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 satisfaction of low-income middle-aged and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on individual subjective happines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gender control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related policies and programs. The SPSS WIN 25.0 program used frequency analysis,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PROCESS MACRO Model Number 4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482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extracted using the "17th Korea Welfare Panel in 2022" survey data. In addition, the control effect was verified using PROCESS MACRO Model Number 1.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showed that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fter controll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ad a positive effect on subjective happiness. Second,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 of social relationships among women than men, the greater the sense of happiness. Through this study, it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d the meaning of social relationships of middle-aged and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and presented practical implications so that the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olicy support measures.

**Key Words** : Middle-aged people, Single-person households,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Depression, Happiness, Gender differences

\*Corresponding Author : Ouk-Sun Cho(sun16070@naver.com)

Received July 25, 2023

Accepted September 20, 2023

Revised August 14, 2023

Published September 28, 2023

## 1. 서론

삶의 만족을 의미하는 행복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의 생활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행복한 사람일수록 기대수명이 높고, 면역 시스템 기능이 향상되며, 더 나은 시민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행복한 사람은 더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 가능하며, 스트레스와 부작용으로부터 빠른 회복력을 갖는다. 이처럼 행복이 주는 긍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 정부는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의 욕구(need)를 포괄하며, 삶의 질, 행복, 안녕(well-being), 복지, 행복감 등의 개념과 중복하여 사용한다[2]. 삶의 만족은 개인의 소득, 주거, 교육수준 등 사회적 물리적 환경 요소들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되어왔지만, 행복과 같은 주관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까지 발전하였다[3]. 최근에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개인들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점차적인 고령화 사회 진입 문제와 더불어 중장년은 노년층으로 진입을 앞두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미래 사회에서도 이들의 행복과 삶의 만족이 곧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4].

최근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중장년층의 빈곤, 사회적 고립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인 가구란 일반 가구 중에서 1인이 독립적으로 취침, 취사 등을 해결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5]. 통계청 2022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722만 4천 가구로 2021년도보다 18만 4천 가구가 증가하였고 전체 1인 가구 중 4·50대 중장년층은 2천 39가구로 60대 2천 564 가구보다는 약간 낮지만 다른 연령층보다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5].

이처럼 1인 가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그 예로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여 저출산을 낳고 자신의 행복과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된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겨냥한 상품이 개발되고 관계,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족 정책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6]. 그런데 1인 가구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그들의 특성 및 현황 중심의 연구와 더불어 독거노인 등 노년층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단절, 자살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7].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빈곤은 그 심각성이 대두되었지만, 중장년층의 빈곤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는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국회미래연구원[8]에서 발간한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에서 1인 가구의 전반적 행복감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30대 이하는 10점 만점에 6.60점, 40대 ~ 50대는 6.22점, 60대 이상 고령 1인 가구는 5.96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여성보다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다고 보고하였다[7].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활 수준만족도, 건강, 공동체 소속감, 우울, 사회적 관계망, 여가생활 만족도 등 다양한 변인을 꼽고 있다[9-12].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고립·고독사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대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7].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행복감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는 사회 교제 및 정보 교환의 기능을 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및 연대감을 향상해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작용한다[14, 15]. 그러므로 사람들과 매우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상대방에게 지지와 도움을 제공하며 심리적 행복감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개인은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하고[14], 그 관계 속에서 행복감과 불행은 느끼게 된다. 즉, 지역사회 수준에서 공식적 유대관계, 지역사회 및 구성원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삶의 만족도)이 높아지고[15, 16], 소속된 사회에서 개인을 낮게 평가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행복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7]. 하지만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하게 되면[18]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행복감을 높여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가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조화를 유지하게 되면 주관적 행복감이 상승할 것이다. 이처럼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행복감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부족함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우울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우울감은 일상생활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특징을 지니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며, 절망, 수면 장애, 슬픔, 자기혐오, 무기력, 식욕 부진, 두려움, 외로움의 특징을 가지는 감정 반응이다[19].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자녀, 가족 및 친인척과 같은 혈연관계망, 친구와 직장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망 등을 통해 도움받을 기회를 증가시켜 우울감이라는 정신적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보면, 사회적 관계 만족도 요소인 가족이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심리적인 인지가 우울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가족과 만남이나 연락의 빈도처럼 접촉의 양보다 함께 공유하며 얻는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우울감에 더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20-22]. 이처럼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원에게 있어서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구성요소인 가족이나 직장, 친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서로 정서적 및 사회적 지지망을 촘촘하게 연결할수록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긍정 요인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중장년의 우울감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중년 남성의 경우 연령에 따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23-25].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연구[26]한 결과에서 우울감은 높을수록 남녀 모두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중고령자 1인가구 삶의 만족도 변화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중고령자 1인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삶의 만족도 즉, 행복감이 낮았으며, 우울감도 행복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27].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는 중고령자 1인 가구보다 사회환경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우울감이 더 심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행복감을 더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경기침체로 인해 결혼은 선택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자의 또는 타의로 취업하지 못하거나 조기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동반한 1인 가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은 사회적 비관과 함께 우울감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우울감을 감소시켜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이 더 나은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책무라고 보며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한편,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행복감은 성별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인 가구의 행복감을 연구한 Kim et al.[28]은 남성보다 여성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복지패널 13차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령자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선행연구[29]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중고령자 1인 가구 삶의 만족도 변화와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다인 가구와 1인 가구 모두에서 삶의 만족도 즉, 행복감이 높았다[30]. 도시 거주 노인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31]에서도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에 따른 사회문화적 기대와 규범이 다르기 이로 인해 남녀가 겪는 경험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32]. 이런 차이는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주변 환경에 대한 지각과 반응을 다르게 이끄는 요인이 된다. 이 때문에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이 성별에 따라 다른 수준을 보일 수 있고, 영향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성과 여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여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 이후 삶에서 노인 빈곤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위의 연구목적에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저

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 문제 2>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의 관계에 우울감은 매개 역할을 할 것인가? <연구 문제 3>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나타날 것인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감의 매개효과 및 성별 간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Fig.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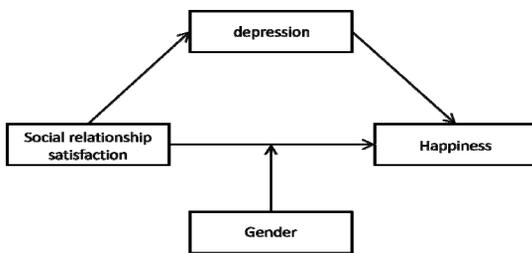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2.2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2023년 한국복지패널 17차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전국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대표적인 패널자료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미만 저소득 가구 중에서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장년층은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과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1]에 근거하여 '만 40세~64세 연령층의 남녀 1인 가구'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으며,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변수 총 1,871명에서 결측치를 제거한 482명의 표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 2.3 측정도구

#### 2.3.1 행복감

종속변수인 행복감 척도는 한국복지패널 12차 연도부

터 주관적 행복감을 나타내는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행복감은 0(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에서 10(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까지 11단계의 사다리형 구성되어 있으며, 10에 가까울수록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11단계의 사다리형 구성되어 있지만 1개 문항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신뢰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 2.3.2 사회적 관계 만족도

독립변수인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개인 주변의 다양한 상황과 관계들에 대한 사회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족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등 4가지 항목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 범주는 '매우 불만족' 1점부터 '매우 만족'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를 통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0.775$ 로 내적 일관성 있는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 2.3.3 우울감

본 연구에서 우울감에 대한 측정은 Radloff[3]가 일반인의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of Depression)를 한국복지패널에서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축약한 11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다[4]. 우울감에 대한 항목으로는 '식욕이 없다.' 등이 있으며, 각 항목은 '극히 드물다.' 1점에서 '대부분 그랬다.' 4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을 총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0.891$ 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3.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성별(1=남자, 2=여자), 교육(1=초졸 이하, 2=중졸, 3=고졸, 4=전문대졸 이상), 월소득(1=전혀 없다, 2=100만원 미만, 3=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500만원 이상), 자가 유무(1=자가, 2=비자가), 직업 유무(1=직업 유, 2=직업 무)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2.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

은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이상 분석 결과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 3. 연구결과

####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은 '남자' 245명(50.8%), '여자' 237명(49.2%)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 118명(24.5%), '50대' 186명(38.6%), '60대' 178명(36.9%)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은 '초졸 이하' 100명(20.7%), '중졸' 85명(17.6%), '고졸' 190명(39.4%), '대졸 이상' 107명(22.2%)으로 분포하고 있다. 월 소득은 '없음' 119명(24.7%), '100만원 미만' 82명(17.0%), '100~300만원' 미만 188명(39.0%), '300~500만원 미만' 69명(14.3%), '500만원 이상' 24명(5.0%)으로 나타났고, 자가 여부는 '자가' 166명(34.4%), '비자가' 316명(65.6%)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유무는 '있음' 321명(66.6%), '없음' 161명(33.4%)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n = 482)

Variable	Section	N	%
Gender	Men	245	50.8
	Women	237	49.2
Age	40s	118	24.5
	50s	186	38.6
	60s	178	36.9
Education	under elementary school	100	20.7
	middle school	85	17.6
	high school	190	39.4
	college or more	107	22.2
Monthly Income	none	119	24.7
	less than 1 million won	82	17.0
	less than 1-3 million won	188	39.0
	less than 3-5 million won	69	14.3
	Over 5 million won	24	5.0
home ownership	Owner	166	34.4
	Tenant	316	65.6
Employment	Employed	321	66.6
	Unemployed	161	33.4

#### 3.2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38로 나타났고, 우울감의 평균은 4점 만점에 1.48로 나타났으며, 행복감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6.00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의 정규성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왜도 절댓값 3 미만, 첨도 절댓값 10 미만이면 정규분포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는데[34], 모든 주요 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482)

Variable	Min	Max	Mean	S.D	Skew	Kurt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1.00	5.00	3.38	.62	-.81	1.16
depression	1.00	3.56	1.48	.54	1.38	1.68
Happiness	.00	10.00	6.00	1.86	-.36	-.05

#### 3.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행복감은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r=.576$ ,  $p<.001$ ), 우울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r=-.534$ ,  $p<.001$ ).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우울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496$ ,  $p<.001$ ). 변인 간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0.80 미만으로 다중공선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depression	Happiness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1		
depression	-.496***	1	
Happiness	.576***	-.534***	1

\*  $p<.05$  \*\*  $p<.01$  \*\*\*  $p<.001$

#### 3.4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인 구사회학적 배경변인을 통제하여 Hayes[35]가 제안한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happiness

Model	DV	IV	B	SE	$\beta$	t	p	F(R <sup>2</sup> )
1	Depression	Age	.018	.031	.025	.565	.573	34.384*** (.303)
		Education	-.037	.022	-.072	-1.709	.088	
		Monthly Income	-.109	.029	-.234	-3.711***	<.001	
		Owner	-.043	.045	-.038	-.958	.339	
		Employed	.042	.067	.037	.627	.531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356	.036	-.410	-9.932***	<.001	
2	Happiness	Age	-.048	.101	-.020	-.474	.636	47.492*** (.375)
		Education	.038	.071	.021	.531	.596	
		Monthly Income	.394	.096	.244	4.088***	<.001	
		Owner	.201	.146	.051	1.373	.170	
		Employed	-.311	.220	-.079	-1.414	.158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1.515	.118	.504	12.895***	<.001	
3	Happiness	Age	-.031	.097	-.013	-.317	.751	51.651*** (.433)
		Education	.001	.068	.001	.012	.991	
		Monthly Income	.286	.093	.177	3.060**	.002	
		Owner	.158	.140	.041	1.133	.258	
		Employed	-.269	.210	-.068	-1.282	.201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1.161	.123	.386	9.423***	<.001	
		Depression	-.996	.143	-.288	-6.947***	<.001	

home ownership(Tenant=0), Employment(Unemployed=0) \* p<.05 \*\* p<.01 \*\*\* p<.001

Process Macro 4번 모델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통제변수인 월 소득은 우울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beta=-.234$ ,  $p<.001$ ). 독립변수인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매개변수인 우울감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beta=-.410$ ,  $p<.001$ ), 우울감에 대한 통제변수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설명력은 30.3%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통제변수인 월 소득은 행복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beta=.244$ ,  $p<.001$ ), 독립변수인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종속변수인 행복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beta=.504$ ,  $p<.001$ ), 행복에 대한 통제변수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설명력은 37.5%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통제변수인 월 소득은 행복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beta=.177$ ,  $p<.01$ ), 독립변수인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행복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beta=.386$ ,  $p<.001$ ), 매개변수인 우울감은 행복감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beta=-.288$ ,  $p<.001$ ). 행복감에 대한 통제변수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 우울감의 설명력은 43.3%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매개변수인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우울감이 종속변수인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우울감을 통한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행복감에 대한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매개변수가 포함된 3단계에서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행복감에 대한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하므로 우울감은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감을 통해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3.5 우울감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Table 5와 같이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10,000개의 표본을 만들어 신뢰구간 95%에서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행복감에 대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총효과( $B=1.515$ ,  $p<.001$ )와 직접효과( $B=1.161$ ,  $p<.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우울감을 통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236, 0.489]이고, 그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5. Bootstrapping analysis

	B	S.E.	LLCI	ULCI	t	p
Total effect	1.515	.118	1.285	1.746	12.895***	<.001
Direct effect	1.161	.123	.919	1.403	9.423***	<.001
Indirect effect	.355	.064	.236	.489		

\* p<.05 \*\* p<.01 \*\*\* p<.001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gender

DV	IV	B	SE	t	p	F(R <sup>2</sup> )
Happiness	Age	-.058	.097	- .599	.550	37.715*** (.445)
	Education	-.007	.067	- .100	.920	
	Monthly Income	.309	.093	3.308**	.001	
	Owner	.144	.139	1.035	.301	
	Employed	-.300	.209	-1.439	.151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1.119	.126	8.906***	<.001	
	Gender(Women)	.098	.135	.729	.466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Gender(Women)	.767	.245	3.130**	.002	

home ownership(Tenant=0), Employment(Unemployed=0),  
Gender(men=0) \*\* p<.01 \*\*\* p<.001

### 3.6 성별의 조절효과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을 통제하여 Hayes[35]가 제안한 Process Macro 1번 모델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제변수인 월 소득(B=0.309, p<.01)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관계 만족도(B=1.119, p<.001)는 종속변수인 행복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성별의 상호작용항은 행복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B=0.767, p<.01). 따라서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성별이 여자인 경우 더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연령층에서 가장 비중이 큰 중장년층,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의 복지정책 요구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성별에 차이에 따른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직업, 사회적 친분, 여가생활 등 개인의 주변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더욱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수시로 관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상호작용을 포함

한다고 할 수 있다. 가족과 친구와의 유대 정도가 높고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36,37]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우울감의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 et al.[27]은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구성요소인 여가만족도가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산지역 남성과 여성의 대상으로 연구한 Choi[38]은 심리적 요인인 우울감이 행복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검증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감소되고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성별(gender)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스스로 행복하다고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 중장년 여성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남성보다 여성의 행복감에 영향력이 큰 것을 의미한다. 가족 및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한 선행연구[30,39]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에 비해 정신적으로 민감한 여성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노인 빈곤으로의 연결고리를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중장년 1가구의 안정적인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부모나 형제 등 가족과의 교류와 지역사회 및 직장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고물가 시대에 저소득층 중장년 1가구는 여가활동을 즐긴만한 여력이 없고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 투자할 경제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취미활동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그곳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학교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설들이 많이 운영된다면 저소득층 중장년 가구가 원할한 사회적 관계를 맺어 심리적으로 불안감과 고립감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그들이 행복하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저소득층 중장년 1가구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줄여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것이다. 도시 거주 예비 노인은 친구관계망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년배 집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서적인 교류를 나누게 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어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40]. 이처럼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가 바우처 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활동이나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게 되어 우울증이나 고독사를 줄일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지역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동호회 등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재 활동중인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중장년 1가구가 은퇴 이후 경제적 안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 관리 프로그램과 노후 재무 설계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저소득층 중장년 1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 경제적 자립과 그들의 적성에 맞는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게 되면 가족들과 만남도 빈번해져 정서적 지지를 받게 되고 직장을 통해 각종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어 자신의 현 상황을 비판하지 않게 되어 우울감을 낮추고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처럼 저소득층 중장년 1가구의 일자리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제공하고 직장이라는 환경을 통해 사회적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들의 사회적 안정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저소득층 중장년 1가구의 행복감이 상승하면, 이후 노년기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받아들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중장년 1가구 여성의 주관적 행복감을 더 상승시키기 위해 가족 문제 상담이나 중재 서비스와 지역 친목 모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혼이나 가족이 없는 경우는 결혼지원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들 중 사회참여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여가, 취미, 스포츠 동호회 등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행복감을 높여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저소득층 중장년 1가구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을 위해 의사소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원되길 바란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중장년 1가구 남성에게 요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사회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혼자 사는 남성들은 매끼 식사를 거를 수 있어 건강에 적신호가 울 수 있고 중국에는 행복감을 떨어뜨리게 된다. 저소득층 중장년 1가구 남성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횡단연구이므로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의 관계를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종단 연구 설계를 통해 주기적으로 개인의 행복감 수준을 측정하여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변화적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중장년 1인 가구 외에 다인 가구, 다양한 계층 및 연령층의 1인 가구와의 행복 지수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중장년 1인 가구의 행복감에 대한 좀 더 면밀한 후속 연구가 수행된다면 중장년 1인 가구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장년 세대의 내재적 특성과 구조적 변인을 포

함한 연구가 수행되어 중장년 행복감 증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

## REFERENCES

- [1] E. Diener & R. Biswas-Diener. (2019). Well-being Interventions to Improve Societies. *Global Happiness Council, Global Happiness and Well-being Policy Report*, 95-110.
- [2] J. H. Bae & O. H. Yoon. (2014).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the Island Area.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8(2), 315-334.
- [3] L. E. Gómez., M. Á. Verdugo., B Arias & V. Arias. (2011). A Comparison of Alternative Models of Individual Quality of Life for Social Service Recipi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1, 109-126. DOI : 10.1007/s11205-010-9639-y
- [4] B. J. Lee., S. A. Kim & T. J. Lee. (2022). The Daily Lives and Happiness of Young People and Middle-aged People through the Daily Reorganization Method. *Korea Association of Welfare Policy Collection of Spring Conferences*(pp. 395-416). Busan : KAWP
- [5] Statistics Korea. (2022). 2022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 [6] Y. Y. Kim. (2018). Single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Social Policy in Incheon Area.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34(3), 1-30. UCI : I410-ECN-0102-2018-300-004029367
- [7] M. H. Park (2018). A Study on the Employment Determinants of Late 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s. *Global Social Welfare Research*, 8(1), 5-24. UCI : I410-ECN-0102-2018-300-004055343
- [8]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022). <https://nafi.re.kr/new/report.do?mode=view&articleNo=3585&article.offset=0&articleLimit=5>
- [9] H. S. Jeong & Y. H. Kim (2014). Related Factors of Married Person's Happiness in Early Adulthood -Focusing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ocial Activity, and Relationship Factor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9(2), 97-122. UCI : I410-ECN-0102-2015-300-000293967
- [10] S. H. Kim., H. J. Kang & Y. J. Kim. (2008). The Effects of a Social Network for Female Elders Living Alone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on Their Quality of Life.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13(3), 51-71. UCI : G704-001932.2008.13.3.004
- [11] M. A. Shin. (2019). Comparison of Happiness in the Adults by Household Types : Analysis of Data from the Community Health Survey(2019).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16(4), 277-284. DOI : 10.21097/ksw.2021.11.16.4.277
- [12] H. S. Park & Y. S. Park. (2013). The Effects of Job Satisfaction on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Marital Statu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1, 85-110. UCI : I410-ECN-0102-2014-300-001621621
- [13] B. H. Kim & Y. S. Ahn. (2008). An 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isure Activity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Social Science Research*, 15(1), 141-160.
- [14] K. S. Park. (2000). Informal Social of the Elderly Korean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4(3), 621-647.
- [15] K. W. Cho. (2002). The Study on the Degree of Life-Satisfaction of the Female Single Aged. *A Study on the Welfare of the Elderly*, 17, 85-125. DOI : 10.15300/jcw.2012.12.43.555
- [16] J. Han., S. H. Kim., S. E. Ha & I. C. Shin. (2014). Ambivalent Effects of Social Relations on Subjective Well-being.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8(5), 1-24. DOI : 10.21562/kjs.2014.10.48.5.1
- [17] H. C. Kwon & H. Y. Kim. (2017). The Life of Middle-aged Men Who Live Alone : A Study of Social Relations and Subjective Happiness Among 4050 One-Person Male Households. *Social Science Research*, 24(3), 267-290. DOI : 10.46415/jss.2017.09.24.3.267
- [18] R. L. Barker. (2003). Social Work Dictionary (3rded). Washington D. C. NASW Press.
- [19] K. R. Park. (2012). The Effects of Structured Social Network Types and Their Relationship to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Singles and Couples.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21(5), 929-945.

- DOI : 10.5934/KJHE.2012.21.5.929
- [20] K. L. Fiori., T. C. Antonucci., & K. S. Nortina. (2006). Social Network Typologies and Mental Health among Older Adul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 61B(1), 25-32.  
DOI : 10.1093/geronb/61.1.p25
- [21] K. L. Fiori., J. Smith & T. C. Antonucci. (2007). Social Network Types among Older Adult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s of Gerontology: Science B*, 62(6), 322-330.  
DOI : 10.1093/geronb/62.6.P322
- [22] J. H. Park. (2012). The Influence of Depress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 Aged Males: A Moderating Effect of Problem Drinking.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33, 1-20. UCI : G704-002139.2012.33..008
- [23] H. J. Kim., S. Y. Ko., H. W. Jung., J. S. Lee & J. Y. Lee. (2009). A Study of Predictors of Retired Elderly Men's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21, 253-280.  
UCI : G704-002139.2009.21..002
- [24] M. E. Beutel., H. Glaesmer., J. Wiltink., H. Marian & E. Brähler. (2010). Life Satisfaction, Anxiety, Depression and Resilience Across the Life Span of Men. *Aging Male*, 13(1), 32-39.  
DOI : 10.3109/13685530903296698
- [25] S. K. Kim. (2017). Factors Influencing the Happiness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Elderly Living Alone: Using Data from 2015 Community Health Surve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3(2), 97-106.  
DOI : 10.14370/jewnr.2017.23.2.97
- [26] S. P. Hong & H. R. Lim. (2022). Analysis of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and Influence Factors in Single-Person Households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Comparative Analysis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with Multi-Person Households. *Korea Open Access Journals*, 42(2), 7-27. DOI : 10.15709/hswr.2022.42.2.7
- [27] S. M. Kim., E. H. Kim & Y. J. Jung.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Leisure Satisfaction on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ttitude and Happiness of One-person Household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0(4), 755-780. DOI : 10.22143/HSS21.10.4.54
- [28] K. I. Yun. (2016). The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Poverty of Single Households Based on The Capability Approach of Amartya Se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6(2), 457-473.  
UCI : G704-000573.2016.36.2.017
- [29] S. P. Hong & H. Y. Lim. (2022). Analysis of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and Influence Factors in Single-Person Households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 Comparative Analysis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with Multi-Person Household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2(2), 7-27.  
DOI : 10.15709/hswr.2022.42.2.7
- [30] S. H. Choi. (2020).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n Urban Areas: Focused on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0(2), 244-282.  
UCI : I410-ECN-0102-2021-300-001179710
- [31] J. K. Kim. (2018). The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Awareness of Life and Happiness Perceived by Youth Generation. *Korea Social Policy Review*, 25(3), 209-245.  
DOI : 10.17000/kspr.25.3.201809.209
- [32] L. S. Radloff.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DOI : 10.11770/014662167700100306
- [33] Z. D. Gellis. (2010). Assessment of a Brief CES-D Measure for Depression in Homebound Medically Ill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53(4), 289-303.  
DOI : 10.1080/01634371003741417
- [34] R. B. Kline.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The Guilford Press.
- [35] A. F. Hayes.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DOI : 10.1080/01634371003741417
- [36] H. S. Lee. (2005). A Study on Social Solidarity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Urban Elderly. *Korean Aged Studies*, 25(3), 123-138.

- [37] S. H. Kim., H. J. Kang & Y. J. Kim. (2008). The Effects of a Social Network for Female Elders Living Alone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on Their Quality of Life.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13(3), 51-71.
- [38] M. O. Choi. (2011). The Study of Comparing the Factors Affecting Male and Female happiness-Focusing on the city of Busa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hung University*, 27(2), 19-40.
- [39] E. Diener.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DOI : 10.1037/0003-066X.55.1.34
- [40] J. H. Lee & G. H. Han. (2012). Korean Pre-elders' Friendship Experience and Happines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2(2), 170-205.

유수열(Su-Yeol Yoo)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디지털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2010년 2월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석사)
- 2021년 3월~현재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 과정

-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사회서비스
- E-Mail : ysu790523@gmail.com

조옥선(Ouk-Sun Cho)

[정회원]



- 1987년 2월 : 충남대학교 수학과(이학사)
- 2013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 2016년 2월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6년 3월~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행정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여성, 아동/청소년, 다문화, 이주노동자, 가족복지
- E-Mail : sun16070@naver.com